



군대생활 사용 설명서 권해영 지음

성공적인 군생활 안내서

군대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아만적 행위는 어제 오를 일이 아니다. 윤일병 사망사건이 보여주듯 이 같은 악습은 오래전부터 지속돼온 고질적인 병폐다.

군대 인권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군대 생활을 다룬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경운대 군사학과 교수로 있는 권해영 씨가 쓴 '군대생활사용설명서'는 성공적인 군생활을 위한 안내서다. 저자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군대생활이라면 A부터 Z까지 알고 가는 게 낫다는 관점을 취한다.

무엇보다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저자의 관점은 명백하다. "어떤 경우가 됐든 때리는 순간 강자는 가해자가 되고, 약자는 피해자가 된다. 법 앞에서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고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다. 그러나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플래닛미디어·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선비의 아내 류정월 지음

조선 아내들의 내밀한 일상사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삶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류정월 박사의 '선비의 아내'는 조선 아내들의 일상사를 내밀하게 들여다본다.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혼인, 사랑, 첩에 대한 질투, 집안 살림과 경제 활동 등 모두 아우를 가졌다. 저자는 설화, 야담, 일기, 편지 등을 통해 조선 양반가 여성들의 내밀한 일상을 추적한다. 책에는 선비의 아내와 아울러 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있다. 여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남성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당위 외에도 그 경계가 불분명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파악한 조선 선비의 아내들은 지극히 소박하면서도 기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선비의 아내는 남편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 구경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역사의 아침·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음식은 약이자 독...과잉과 결핍 사이 '식단의 딜레마'

생각하는 식탁

정재훈 지음



"인간은 잡식동물이다. 대체로 잡식 동물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다. 시금치를 골랐다고 생각해보자. 다른 동물은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사람은 한 단계를 더 나아간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친 다음, 갖은 양념으로 버무려 먹을까, 불에 볶아서 굴소스를 곁들여 먹을까, 아니면 날 것 그대로 드레싱만 얹어 샐러드로 먹을까 결정해야 한다. 인간에게 음식을 선택하는 일은, '무엇을 먹느냐'에 더해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다."

식탁도 유행을 탄다. 어떤 전문가가 TV프로에 나와 지중해식 다이어트 효능을 언급하면 급세 식탁이 바뀐다. 올리브유, 토마토, 발사믹 식초 등이 더해지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음식은 열된 호응을 받아 '슈퍼스타'가 되기도 한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조인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소금과 설탕을 피하라', '아제는 조리하지 말고 생으로 먹어라' '유기농 과일을 먹어라'와 같은 조인은 식품 포장지 문구마저 바꾸는 위력을 발휘한다. '無설탕! 나트륨 제로!'가 그 같은 사례다.

스스로를 '킷트 그는 잡식동물'로 규정하는 정재훈 약사가 쓴 '생각하는 식탁'은 음식과 선택의 문제를 다각도로 추적한다. 그는 인간을 '잡식동물'로 규정한다. 음식 선택에 원초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혹여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긴장이 느껴진다면 그런 본성 때문이라고 본다. 저자는 "고를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많다 보니 더 머리가 아프다"며 "새로운 음식을 접어들 때마다 모종의 불안감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 사례로 미국의 전형적인 마트를 예기한다. 보통 3만에서 4만 개 정도의 품목이 진열되는데, 32만개가 넘는 품목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매년 새로 출시되는 1만 중 이상의 신제품이 더해지면 그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저자는 마트가 사람이 잡식동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장소라고 설명한다. 즉 음식을 선택하는데 적잖은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란다.

이 지점에서 저자의 주장이 놓여 있다. "좋은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것보다 더



수많은 품목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판매하는 대형마트. '생각하는 식탁'의 저자는 마트가 '선택적 자유를 주는 곳'이 아니라 '선택적 고통을 주는 곳'이라고 분석한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모순'에 빠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다.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과잉과 결핍, 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실제로 비타민 결핍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가난한 지역이다. 현재 우리는 과제중 인구가 영양결핍 인구보다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당연히 몸에 좋은 음식을 식단에 더하는 건 과잉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보다 나쁠 없다.

균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한 때 완전식품으로 여겨지던 우유를 예로

들어보자. 우유가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영향이 없는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는 각각의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인가. 답은 지극히 단순하다. 영양결핍을 우려하는 사람에게 우유는 훌륭한 보충원이 되지만 반대로 과잉을 걱정하는 이에게는 우유를 섭취한 만큼 다른 음식을 줄이는 게 맞다.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어떤 음식이 모두에게 좋거나 나쁘다는 발상은 식품 회사의

논리일 뿐이다. 건강을 지키는 섭식은 균형 잡힌 식단에 있다.

"많은 경우에 균형이 무너지는 이유는 주로 욕심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상에서 적당히 만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섭식의 역설'은 그런 면에서 기억해 둘 만하다. 모든 음식은 생명을 살리는 영양이면서 동시에 인체의 항상성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다. 그 검에 베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균형'이다." <다른 세상·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과학은 왜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가



과학과 인문학의 탱고 황진명·김유항 지음

21세기를 통섭의 시대라고 한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문·이과 통합 논의는 현재 교육과정은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1년 문·이과 구분이 없는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면 통합이 완료된다. 21세기 창의적 인재는 과학과 인문에 능통한 통섭적 인간을 전제한다.

과학이 왜 인문학적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지를 다룬 '과학과 인문학의 탱고'

가 나왔다.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황진명·김유항 씨는 20대 미국 유학시절부터 함께 공부한 학문적 동지이자 부부다. 부부가 함께 펴낸 이 책은 왜 과학기술에 인문적 소양과 예술적 상상력이 필요한지를 과학의 역사를 통해 이야기한다.

최근 대기업 채용을 보면 이공계 출신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CEO도 이공계 출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학 기술을 잘 아는 인재가 예술적·창조적 감성까지 갖춘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 생산될 것이다.

중세시대에는 모든 지식 개념에 '인문주의'가 깔려 있었다. 르네상스 사상가들은 과학과 인문학을 두루 섭렵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같은 다방면에 박식한 '르네상스

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문학적 토양이 건설했기 때문이다.

저자들의 관점은 간단하다. "모든 지적 생활은 인문학과 과학, 두 문화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 문화의 소통 부재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등 격변기를 지나면서 과학과 인문학의 간극은 커져갔다. 21세기에 들어서는 과학기술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의 동력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대의 과학기술은 인문학적 스토리를 접목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과나무·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베트남 참전자들 고통의 근원 파헤쳐



인간아아, 인간아 이상문 지음

전사자들은 말이 없고, 전상자들은 소리조차 죽어간다. 정신적 외상자들은 조용하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3대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은 '황색인'의 작가 이상문이 또 하나의 장편소설 '인간아아, 인간아'를 펴냈다. 이번 소설에서는 시야를 더 확장해 6·25전쟁의 제3차 피해자와 베트남 전쟁의 제2차 피해자까지

를 다루고 있다.

나주에서 태어나 대학 재학중 입대해 1970년 월남전에 참전했던 저자는 자신의 6·25전쟁 유년기 체험과 베트남 전쟁 청년기 체험을 통해 다른 작가들이 보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떠안고 사는, 특히 베트남 전쟁 참전자들이 떠안고 사는 고통의 근원을 밝혀내고자 했다.

소설은 주인공 황덕수에게 죽은 아내 정미연의 귀신과 옛 전우인 구중구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시작된다. 덕수는 베트남전 참전 당시 자신의 애인이었던 김마이를 범한 구중구를 거세하고 그 후유증으로 자신은 성부전 상태가 된다. 비정상적인 결혼생활 속에서 아내 미연은 병을 얻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문예바다·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길이 ~5m, 두께 100mm

통원목가구 광주 최초판매(가정용·업소용·인테리어)

☎ 1899-0240
www.hong79.com